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28일)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동국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0월 23일 교내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제8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고 700여 대학생 불자에게 각 100만원씩 총 약 7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의 주인, 사회의 주인 나아가 세상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글=김민재 기자, 사진=동국대 홍보실

조계종 내년도 예산 909억원 편성

조계종 기획실, 10월 23일 예산안 공개

일반 315억 · 특별회계 593억원 편성

'천년을 세우다' 중점사업 예산 확대

'선명상센터 건립' 예산 6억원 배정

종무기관 개편… 분담금 전년 준해

11월 5일 중앙종회에 안건 부의키로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이 불기 2569(202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909억5825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965억8448만원보다 감액된 수치다.

총무원 기획실은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예산에 따른 주요 종책기조와 내용을 설명했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사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했다"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종단 조직개편을 염두해 현재 예산은 내년 3월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억585만원 증액(1.2%)된 315억7450만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중앙분담금, 직할분담금, 법인분담금은 2024년 예산에 준해 편성됐고 직영분담금(2023년 대비 5%), 특별분담금(1.1%), 문화유산분담금(2.5%)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1.2%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이 꾸려졌다. 다만 세출 예산안의 예비비는 올해보다 13.7% 증액한 37억8714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용구 총무원 기획차장은 "조직개편 이후 신설 부서와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총무원장 직속으로 구성될 미디어홍보실, 조계종 연구소에 대한 예산은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종무기관 내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59억8473만원(-9.2%) 감액된 593억8375만원으로 편성됐다. 국고 및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비 81억원(국고 54억, 자부담 27억)이 투입된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과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양평 전법회관 건립 불사는 올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다.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에서는 내년부터 서울 봉은사 인근에 건립되는 10·27법난 기념관 불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기본설계로 7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념관은 2028년 12월 종료를 목표한다.

37대 총무원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도 이어간다. 선명상센터 건립 자부담금 1억원 및 철거비 5억원이 편성됐다. 김용구 기획차장은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에 종단 직영 선명상 센터 건립을 위해 190억 규모 사업이 계획된 상태"라면서 "관할 성북구청과 문체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해당 토지 소유권을 조계종 유지재단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선명상 관련 심포지엄과 컨퍼런스와 함께 지역 연계사업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에 자부담금 9300만원(국제선명상대회 3300만원, 지역연계활성화 6000만원)이 편성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이 편성한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10월 23일 제36차 종무회의에서 확정하고 11월 5일 예정된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 정사 선출

종의회 ·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서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 정사(서울 행원심인당 주교·사진)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는 10월 2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43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제32대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해 능원 정사를 선출했다. 앞서 인의회는 제32대 통리원장 후보에 덕운 정사(대구 시경심인당 주교)와 능원 정사를 복수 추천했다.

신임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진기 52(1998)년 밀각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승원·대명·보정·탑주심인당 주교와 대구교구 직무스승, 통리원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제12~15대 종의회 의원, 포항교구청장, 서울교구청장, 현정원 현정위원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종단산하기관으로는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사무처장, 위덕대 전법원장,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이사, 진각복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정교실장과 제16대 종의회 의원, 제38대 현정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취임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사진>가 10월 21일 취임했다.

한 대표이사는 천안북일고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불교신문사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하며 불교 언론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불교신문사 취재부 차장,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사무국장, 조계종 사서실 사서팀장, 동국대 의료원 대외협력관, (재)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1~2017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 불교담당 행정관을 지내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 대표이사는 "현대불교신문 설립자이신 대행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사부대중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전국민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
- 세상과 나의 평화를 위한 실천 -

'하루 5분 선명상'과 함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선명상 공식 어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선명상'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 '선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선명상 홈페이지

선명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선명상TV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에 '선명상TV'를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